

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

2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8월 17일, 권광택 의원 외 41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(2023년 8월 29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권광택 의원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경상북도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부재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1.4명으로 전국 최하위, 최근 10년간 의료인력 증감은 0.14명으로 전국 최하위 등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도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음.
- 특히,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인 46.98명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은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겪고 있음.

- 따라서, 경상북도의회는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적정 의사 수를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의 증설로 인해 심각히 훼손된 경상북도민의 의료 불균형을 개선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·건의함.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조영진)

□ 제안이유

- 모든 국민은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0조에 따라 의료기본권을 가지고 있으며,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,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열악한 의료결손 지역으로서,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의 의료 인프라에 의존해 왔고, 이는 국가 균형 발전적 측면과 국민의 생존권 보장 및 의료기본권에 근거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
- 작금 지방의 위기는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실제로 수도권 의료 인프라와 경북의 의료 인프라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, 이로 인한 경북의 인구 유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.
- 경상북도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적정한 의사 수 확보, 의료시설의 증설, 의료서비스의 개선은 경북지역의

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나마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270만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.

-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민의 생명권 및 의료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무를 다해줄 것과 경상북도 지역대학에 의과대학의 신설을 통해 그동안 불균형했던 지역 의료기반을 늦게나마 바로잡아줄 수 있는 촘촘한 의료 보건망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내용

- 위 제안이유와 같습니다.

□ 종합의견

-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.
- 현재 의료시스템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, 특히 경북지역은 의료 인프라와 보건 의료 인력 공급이 매우 부족해 주민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과 이를 위한 의사 인력 확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.

○ 살피건대, 본 건의안은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수호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, 의료 인프라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자 경상북도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써, 그 타당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